

원저

古代의 經脈診斷法 중 十二經脈 脈診에 관한 研究

임성철 · 손성철 · 이경민 · 황민섭 · 김갑성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f pulse diagnosis(脈診) about twelve meridians(十二經脈)

Lim Seong-cheol, Hwang Min-seob, Son Seong-cheol,
Lee Kyung-min, Kim Kap-sung and Yoon Jong-hwa*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Objective : The study of relations between twelve meridians and pulse diagnosis

Method : The possibility of pulse diagnosis on the pulse points(脈動處) of each meridian through the scription of <<Maek beop(脈法)>> <<Nae kyeong(內經)>> and <<Nan kyeong(難經)>>

Result : The comparative pulse diagnosis method(比較脈診法) in the scription of <<Maek beop>> progressed to the five Jang bu maek(五臟脈) in the scription of <<Young chu : Sa gi jang bu byeong hyeong(靈樞·邪氣臟腑病形)>>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pulse diagnosis and the theory of medicine.

Conclusions : The comparative pulse diagnosis method in the scription of <<Maek beop>> progressed to the five Jang bu maek(五臟脈) in the scription of <<Young chu : Sa gi jang bu byeong hyeong>> and the moxibustion and Pyum bup(砭法) in the scription of <<Maek beop>> altered to acupuncture therapy on the five shu points(五腧穴)

· 접수 : 2002년 7월 10일 · 수정 : 8월 2일 · 채택 : 2002년 9월 14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 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1과
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chollian.net

Key words : pulse diagnosis, twelve meridian of the pulse points, Nan kyeong, Young chu of Sa gi jang bu byeong hyeong, Maek beop, five shu points.

I. 緒 論

최근 《素問》 《靈樞》 以前の 先秦의 醫學 內容을 볼 수 있는 《足臂十一脈灸經》(이후 《足臂》으로 稱함), 《陰陽十一脈灸經》(이후 《陰陽》으로 稱함)의 經脈, 《脈法》 《陰陽脈死候》의 診斷, 《導引圖》, 《却穀食氣》의 氣功 導引,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의 藥物, 《合陰陽》의 性 등에 關한 十四種의 醫籍이 馬王堆의 漢代 古墳群에서 出土되었다^{1),2)}.

《陰陽³⁾》에는 “是僮則病”의 文句 뒤에 病症이 記述되어 있고, 《脈法⁴⁾》에는 比較 診斷의 方法이 있으며,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에는 脈의 搏動處가 있고, 《靈樞·經脈》 “不與衆同, 是以知其何脈之病也” 은 各 經脈의 比較 脈診法을 運用하고 있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⁵⁾》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¹⁾處의 存在를 알 수 있다.

十二經脈의 各 經脈의 動脈診(이후 十二經脈 脈診으로 稱함)은 古醫籍에는 脈診의 名稱이 없고, 《陰陽》 《脈法》, 《素問》 《靈樞》, 《難經》 및 《千金翼方》 등의 古醫書을 通하여 十二經脈 脈診의 存在를 推論할 수 있으며, 鄧⁶⁾은 “古代的 遍身診法으로 三部九候診, 十二經脈遍診, 十二經脈 標本診 및 藏醫脈診 등이 있다.” 하였다.

《脈經》에는 ‘足大指間’ ‘足上動脈’ ‘足內下, 動脈’ ‘手腕中’ 등의 動脈處에 대한 部位가 있고⁷⁾

西漢의 《易緯通卦驗》에는 具體的인 部位는 없지만 十二脈診病候가 記載되어 있고, 《針灸甲乙經·卷 十二》에는 足太陽 足陽明 手少陽 手太陽脈이 動하여 나타나는 症狀이 있다⁶⁾.

그리고 《難經》에는 十二經脈 脈診을 寸口脈으로 歸一하는 理由를 《一難》에서 問答으로 明確히 밝히고 있다⁸⁾.

이에 論者는 十二經脈의 各各의 動脈處에서 各 經脈의 病候를 診斷할 수 있는 十二經脈 脈診法에 關하여 戰國의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의 《足臂》 《陰陽》 및 《脈法》, 漢代의 著作으로 보이는 《素問》 《靈樞》 및 《難經》, 晉代의 著作인 《針灸甲乙經》 《脈經》, 唐代의 著作인 《千金要方》 등 古代醫書를 通하여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注: 1. 動脈-古人들은 《素問·三部九候論》 “兩額之動脈” 하여 血管의 搏動을 “動脈”으로 指稱하였고, 《內經》에는 動脈管, 靜脈管의 區別은 없고 二種類의 血液과 血清에 對한 認識이 있었다. 《靈樞·血絡論》 “出血而射者, 何也?” 는 明確히 動脈의 血液이며, “血少, 黑而濁者, 何也” 는 靜脈의 血液이며, “出血, 清而反爲汁者, 何也” 는 血清의 認識이 分明하다⁹⁾.

近代의 張¹⁰⁾은 動脈을 發血管, 靜脈을 洩血管이라 하였다. 그리고 動脈, 靜脈의 概念은 18세기 日本에서 번역된 최초의 解剖學의 翻譯醫書 《解體新書⁶⁾》에서 由來한 醫學用語로 생각하면 古代 醫籍의 經脈과 脈診에 關하여 많은 것을 示唆한다.

II. 本 論

1. 十二經脈 脈診

1) 十二經脈 脈診의 起源

十二經脈 脈診의 名稱은 韓醫學의 古醫籍에는 없으며 先秦의 文獻인 《陰陽》 《脈法》, 秦 兩漢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의 著作인 《難經》 및 唐代의 《千金翼方》 등의 醫書を 通하여 十二經脈 脈診은 先秦에서 漢代까지 運用된 脈診法으로 推論할 수 있다.

鄧⁶⁾은 “《易緯通卦驗》에는 具體的인 脈診의 部位는 없으나 四肢診脈의 十二處에서 診脈하여 나타나는 十二脈診病候가 記載되어 있다.” 하였고, 《難經集注》에서 北宋의 丁¹¹⁾은 “手足의 三陰三陽의 十二經脈은 天地의 陰陽이 通하고 人體의 氣血을 運行하여 十二經의 動脈處에서 百病을 診斷하고 生死를 鑑別할 수 있다” 하여 十二經脈의 動脈處에서 診斷하는 方法에 對한 意義를 說明하였다.

馬王堆 漢墓 (B.C 168년)의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脈法》 및 《陰陽脈死候》는 現存하는 經脈, 經脈 脈診, 治療 및 豫後에 關한 最初의 專門書籍이며 診脈의 目的 部位 方法 및 脈象과 疾病의 治療 등을 論述하고 있다¹⁾.

經脈의 病候에 있어 《足臂》에는 經脈의 體表循行部位의 病症이 爲主이며 四肢에서 軀幹, 頭面의 順序로 記載되어 있으며, 《靈樞·刺節眞邪》 “有一脈生數十病者, 或痛, 或腫, 或熱, 或寒, 或痺, 或不仁, 變化無窮”의 句節은 《足臂》의 經脈病候의 概括이며, 《陰陽》에서 처음으로 病候를 “是動則病” 과 “其所產病”으로 나누어 分類하였고, 所產病은 《足臂》의 病候를 頭面에서 四肢의 順序로

表 1. 《易緯通卦驗》의 十二經脈 脈診의 病候⁶⁾

	脈 虛	脈 盛
足太陰脈	振寒 座疽	暴逆腫脹 心脹閉癢癢
手太陰脈	喉痺 病脹 身熱	多熱 病脹 身熱汗不出
足太陽脈	滿 筋急痺痛 血痺 疫病 癩	衝氣腫 厥眩頭痛 癰疽脛腫
手太陽脈	痺痛	癩疥身養
足陽明脈	泄注腹痛 疥虛 振寒 洞泄 癰疽 癰 振寒 霍亂	腫脹 溫暴死 溫黑腫
手陽明脈	寒熱 齒齲	頭腫 噎喉痺
足少陽脈	癢 疫癘	咳嗽上氣 咽喉腫 栗疾疫
手少陽脈	溫 悲心痛 心痛 溫 心煩 筋痺 胸痛	胸脇痛 病目 臂掌痛 脛痛惡氣
足少陰脈	厥逆 惕善驚	上氣噎腫
心主脈	肘腋痛	病腹 耳痛
足厥陰脈	疝痛腰痛 腰痛	病痛 胸中熱 痛喉風腫
手心主脈	少氣五疽 水腫	癰疽腫痛

改變하여 記載하는 것에서 淵源하였고, 是動病은 대부분이 《足臂》와는 다르며 각 經脈의 動脈處에서 診斷하는 것에서 緣由한 經脈病候이며 두가지 經脈의 病候는 形成根源과 疾病에 對한 認識體系가 다르다.

《脈法》은 《足臂》, 《陰陽》의 뒤에, 《陰陽脈死候》의 앞에 있어 十一脈의 診斷과 治療와 聯關이 있음을 類推할 수 있으며 《脈法》에는 “夫脈固有動者, 肝之少陰, 臂之泰陰, 少陰. 是主動, 疾則病, 此所以論有過之脈其餘謹視當脈之過.” 하여 各 脈에

는 언제나 脈이 動하는 固定的인 部位의 動脈搏動에 異常으로 經脈에 病候를 診斷하는 脈診法을 “多脈編診法” “十二經脈 脈診法”으로 命名하고 있다. 또한 “他脈盈, 此獨虛, 則主病. 他脈滑, 他獨滯. 他脈靜, 此獨動, 則主病.” 하여 이러한 脈診의 方法이 各 脈의 比較에 의해서 動한 脈을 찾아 병이 있는 경맥을 진단하는 比較脈診이며 《經脈》 “不與衆同, 是以知其何脈之病也.”의 句節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各 經脈의 脈이 變動하는 意味하는 《靈樞·經脈》의 “是動則病”은 《史記·扁鵲倉公列傳¹²⁾》의 “切其脈大而實, 其來難, 是厥陰之動也. …… 腹之所以腫者, 言厥陰之絡結小腹也. 厥陰有過則脈結動, 動則腹腫.”의 氣痞를 脈診을 通하여 厥陰脈의 病으로 診斷하고 足厥陰脈에 灸를 하여 治療하는 倉公의 醫案은 脈診을 通하여 常脈과는 다른 異常脈象을 “動” 한다 하였고 《靈樞·經脈》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 하였고, 《脈經·卷十·手檢圖⁷⁾》에 보면 經脈과 奇經八脈의 異常을 모두 “動” 字로 表現하고 있으며 “前如外者, 足太陽也. 動, 苦頭, 項, 腰, 痛. 浮爲風, 澀爲寒熱, 緊爲宿食.”, “前如內者, 足厥陰也. 動, 苦小腹痛. 月經不利, 子臟閉. 等이며, 《針灸甲乙經·卷十二¹³⁾》 “足太陽, 陽明, 手少陽脈動發目病第四”, “手太陽, 少陽脈動發耳病第五”, “手足陽明脈動發口齒病第六” 등이다.

한편 古代의 脈診의 方法들을 聚合하여 獨取寸口說을 立論한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할 수 있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14), 15)}, 唐代의 《難經集注¹¹⁾》, 元代의 《難經本義⁸⁾》, 清代의 《難經潤注箋正¹⁰⁾》 등의 《難經》 註釋書에 약간의 差異는 있지만 十二經脈의 動脈處가 記載되어 있고, 《針灸甲乙經》 《銅人腧穴針灸圖經》 《醫宗金監·刺灸心法要訣》 등의 針灸書籍에 “動脈應手” 하는 經穴이 記錄되어 있다.

表 2. 十二經脈의 動脈部位

十二經	呂 廣	楊 玄 操	滑 壽
足太陽	委中	委中	委中
足少陽	耳前	下關 懸鐘	下關 聽會
足陽明	趺上	衝陽 人迎 大迎	衝陽 人迎 大迎 氣衝
手太陽	目外眦	瞳子膠	天窗
手少陽	客主人	客主人 聽會	和膠
手陽明	口邊 陽溪	地倉	合谷 陽溪
足厥陰	人迎	面骨 (回骨)	太衝 五里 陰廉
足少陰	內踝下	內踝上五寸 間	太溪 陰谷
足太陰	體上	箕門	箕門 衝門
手少陰	掖下	極泉 靈道 少海	極泉
手心主	勞宮	勞宮	勞宮
手太陰	太淵	太淵 尺澤 俠白 天府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十二經脈의 發見初期에는 經脈의 概念과 脈診의 脈의 概念이 混再되어 있었고¹⁾, 古人들의 脈의 認識은 間斷에서 複雜으로 深化되는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經脈의 走行을 觸診하여 搏動을 확인하는 過程에서 十二經脈 脈診이 由來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鄧⁶⁾은 《足臂》의 足少陽脈의 循行의 原文에서 “出于踝前 …… 出于股外廉 出脇 …… 出于項耳 出枕 出目外眦”에서 “出” 字를 使用하여 全過程의 循行을 描寫하고 있으며 《明堂經》 《難經》 呂廣, 楊玄操註, 《素問》 王水註 및 《千金要方》 등의 醫書를 보면 《足臂》 《陰陽》의 十一脈의 循行에서 “出” 字로 描術되어 있는 部分은 모두 動脈處임을 알 수 있다.” 하였다

2) 十二經脈 脈診의 部位 및 經脈穴

《陰陽》의 “……是僮則病……”, 《靈樞·經

脈¹⁷⁾》“脈之卒然動者，皆邪氣居之”와 “是動則病”의 句節, 《脈法》의 脈診法 및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에서 十二經脈 脈診이 있음을 推論할 수 있으며, 鄧⁶⁾은 “《蝦蟆經》 《脈經》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및 《太平聖惠方》에는 十二經脈 脈診의 各 經脈의 診斷處에 該當하는 經脈穴의 部位가 記載되어 있다.” 하였다.

鄧⁶⁾은 <表 3.>의 經脈穴은 診斷處인 脈口와 相應하며 腕 踝部를 超過하지 않으며 經脈穴은 脈口에서 由來하였기 때문에 그 部位에 ‘脈’의 原來의 意味를 保有하고 있고, 현재의 脈穴의 概念과 同一하지 않으며 《脈經⁷⁾》의 券六에는 ‘足大指間’ ‘足上動脈’ ‘足內下動脈’ ‘手腕中’ 등의 記載는 經脈穴과 一致한다.” 하였고, 또 卷十에는 十二經脈의 病變을 ‘動’으로 表現하고 있고, 《針灸甲乙經·卷十二¹³⁾》에는 足太陽 陽明 手少陽脈動發目病, 手太陽 手少陽脈動發耳病, 手足陽明脈動發齒病 등의 記載가 있다

한편 鄧⁶⁾은 “《靈樞·衛氣》의 標本은 動脈診의 行한 診脈處이며 《九針十二原》의 十二原穴은 標本의 本에 該當하는 十二經脈의 診脈處이며, 또 各 經脈의 經脈名과 같은 ‘經脈穴’ (合谷 陽谿穴 附

表 4. 十二經의 本部과 原穴의 比較

經脈	部位	原穴
心主 (手厥陰)	在掌後橫文中	大陵(心)
手太陽	在手小指外側本節(後)陷者中	
足厥陰	在足大指間	
足少陽	在足上第二指本節後一寸	
足少陰	在足內踝下動脈	太溪
足太陽	在足小指外側本節後陷中	
手太陰	在魚際間	太淵
手陽明	在手腕中	
足太陰	在足大指本節後一寸	太白
足陽明	在足上動脈	
(手)少陰	在腕當小指後動脈	
(手)少陽	在手上第二指間去本節後一寸 動脈是也	

近의 動脈處의 名稱을 手陽明穴 등 經脈의 名稱과 같은 古代의 經脈名穴)은 《素問·氣交變大論》 《至真要大論》 《厥論》 등의 《素問》 《靈樞》에서 運用한 脈診의 部位이다.” 하였고, 또 鄧⁶⁾은 “《陰陽》 《經脈》의 “是動則病 …… 是××脈主治”의 內容은 動脈處의 診斷 “經脈穴”의 主治病症의 總結이며 …… 《足臂》의 經脈病候와 《陰陽》의 “是僅則病”의 病候의 治療에 經脈穴에 灸를 利用하였고 經脈穴의 主治는 各 經脈의 病候가 되었다.” 하였고, 鄧⁶⁾은 “最初의 診脈部位이며 刺脈部位가 延變되어 脈穴이 된 후에 此處는 經脈의 起點이 되었고 經脈의 第一穴인 原穴이 되었다.” 하였다.

表 3. “足陽明”과 “手陽明” 穴

	足陽明	手陽明
蝦蟆經	趺上五寸	
脈經	足上動脈	手腕中
諸病源候論	太衝上二寸	大指本節後宛宛中
龍門石刻方		
千金要方	足趺上三寸動脈	
千金翼方	足拇指奇後三寸	腕後陷中動脈大指奇後
聖惠方	足大指岐後二寸	虎口曲紋頭
原 穴		手大指岐骨間
脈 口	足趺上五寸動脈 附陽脈	手大指岐骨間 至腕中動脈

III. 考 察

韓醫學에 運用되는 脈診法은 《難經》에서 確立

된 寸口脈의 寸關尺의 六腑定位脈診法(이후 '氣口脈'으로 稱함)이며, 《素問》에는 寸口診, 三部九候診 등의 脈診法이 있고, 《靈樞》에는 人迎寸口診, 尺膚診 등이 있고, 《難經》에는 獨取寸口說 以外에 輕重法, 六十數, 五十動, 至數法 등의 古代의 여러 脈診法이 記載되어 있으며¹⁸⁾, 鄧⁶⁾은 "古代의 遍身診法으로 三部九候診, 十二經脈遍診, 十二經脈標本診 및 藏醫脈診 등이 있다." 하였다.

古代의 馬王堆 《足臂》 《陰陽》의 經脈은 人體에 있어 一種의 上下 連繫의 規律이며 臟腑와의 連繫는 없어 《脈法》의 "相脈" 즉 比較脈診의 方法 및 治療法은 十二經脈의 各 診脈處의 搏動力으로 各各의 經脈의 盛衰를 살피는 過程에서 萌芽하였다고 생각되며^{2),3),4)}, 《靈樞·經脈》 "不與衆同, 是以知其何脈之病也"와 《靈樞·動脈》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의 文句 및 《素問·脈解》의 經脈病候는 十二經脈 脈診의 病候의 解釋이며 《素問·至眞要大論》의 脈診部位는 十二經脈 脈診의 部位와 같은 '某某某脈口'이다⁶⁾. 이는 《脈法》의 十二經脈의 比較脈診을 《內經》의 著作時期에도 運用한 것을 推論할 수 있으며, 王¹⁹⁾은 "《內經》의 成書前 혹은 成書後에 比較의 盛行한 診斷法으로 一個의 學派가 形成되어 있었다" 하였고, A.D 3 C의 晉代의 著作인 《脈經⁷⁾》 卷六의 五臟六腑의 脈診과 卷十의 十二經脈의 診斷에 '動' 字를 使用하고 있어 十二經脈 脈診의 痕迹이 寸口脈과 混在되어 있다.

先秦에서는 馬王堆의 《足臂》 《陰陽》의 經脈病候에는 《脈法》의 脈診 方法과 灸 및 砭法으로 治療할 수 있으며, 《足臂》 《陰陽》의 經脈 路線에서 臟腑와 連繫는 《足臂》의 手太陰脈의 "至心", 足少陰脈의 "出肝"과 《陰陽》의 手太陰脈의 "入心中", 足太陰脈의 "和胃脈也", 足少陰脈의 "系于腎"의 五脈에 지나지 않고 心, 肝, 胃, 腎의 四臟外에 連繫가 없다¹⁾.

翟¹⁹⁾은 "《內經》에는 寸口에 明確한 臟腑配屬이 없었다. 이는 肝脈, 心脈 등의 十二經脈의 各 經脈을 診察할 수 있는 部位가 있었다" 하였고, 《素問·大奇論》에는 奇病의 診斷을 心脈, 肝脈, 腎脈, 肺脈, 脾脈의 大, 小, 緩, 急, 滑, 澁, 結에 따른 各種 病症을 詳細히 論述하고 있고, 또 五臟脈의 表現과 病症외에 "三陽急爲瘰, 三陰急爲疝, 二陰急爲癰厥, 二陽急爲驚" 하여 太陽, 太陰, 少陰, 陽明의 弦急에 따른 各種 病症이 있고, 鄧⁶⁾은 "手足의 腕踝 附近의 脈診處이자 經脈穴에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厥陰, 少陰으로 三陰三陽으로 命名하였고 …… 經脈과 臟腑의 連繫에 있어 手足의 六陰脈이 五臟과 먼저 連繫가 되고 以後에 手足의 六陽脈과 六腑의 連繫가 이루어졌다." 하였고, 또 鄧⁶⁾은 "《內經》에 있는 脈診을 보면 '人迎脈'의 胃脈 以外에는 六腑의 脈은 볼 수 없고 五臟의 脈만 볼 수 있다." 하였다

또 《素問·病能論》 "有病怒狂者 …… 陽明者常動, 巨陽 少陽不動, 不動而動大疾, 此其候也"의 文句를 張²⁰⁾은 "正常的인 狀況에서 太陽의 委中, 崑崙, 少陽의 聽會, 懸鐘 등의 搏動은 미세하며 갑자기 甚하게 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였고, 王¹⁹⁾은 "《素問·病能論》 "人病胃脘癢者, 診斷何如?… 當候胃脈 人迎者, 胃脈也" 하고 《素問·平人氣象論》 "胃之大絡虛里 …… 其動應衣, 脈宗氣也" 하여 陽明經의 胃經은 人迎穴에서 胃氣를 診候하고, 虛里에서 胃腑에서 所生하는 宗氣를 診斷하는 등의 方法은 《難經》 以前의 十二經脈의 動脈診으로 생각된다." 하였고, 鄧⁶⁾은 "後人들은 《靈樞·衛氣》의 標本을 古代의 動脈診의 部位로 解釋하지 않아 十二經標本診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 하였다.

한편 王¹⁹⁾은 "十二經脈의 搏動處에서 本經 및 絡脈 所屬의 臟腑의 病變을 反影하는 局部의 觀察法은 全面的인 觀察의 整體的인 診察方法으로 運用되었다" 하였고, 王¹⁹⁾은 "十二經脈의 動脈處에서 脈搏의 遲數, 脈體의 大小 및 脈의 流動 등의 情況이 綜

합되어 《靈樞·邪氣藏府病形》에 五臟脈의 急甚, 急緩, 緩甚, 微緩, 大甚, 微大, 小甚, 微小, 滑甚, 微滑, 澁甚, 微澁 등의 各種의 症狀이 詳細히 描寫되어 있다.” 하였고, 鄧⁶⁾은 “《素問·脈解》의 十二經脈病候도 十二經脈 脈診으로 診斷한 病候의 解釋이다” 하였다.

그리고 王¹⁹⁾은 “十二經脈 脈診의 理論과 臨床運用은 《內經》의 成書時期의 前後에 長時間 運用된 方法이며 十二經脈 脈診을 運用한 學派의 論文이 滙篇되어 《內經》에 遍在되어 있다” 하였고, 鄧⁶⁾은 “十二經標本診과 三部九候診은 部位, 病理 및 治法에 있어 相互 聯關性이 있다” 하였고, 또 王²⁰⁾은 “十二經脈 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적으로 同時代거나 十二經脈 脈診이 조금 앞선 것이다” 하였다.

近代의 張¹⁰⁾은 “淺部の 動脈處는 ‘捫而可得’ 하면 頭頰 項, 顱, 肩, 背, 臂, 頸, 手指, 足跗 및 足趾間에서 觸知할 수 있다” 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⁵⁾》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으며, 《難經》以後의 《針灸甲乙經》 《千金方》 및 《銅人腧穴針灸圖經》 등에 記載된 經穴에 “動脈應手”의 部位는 差異가 있지만 《難經》의 注家들인 呂廣, 楊玄操 및 滑壽 등이 言及한 動脈의 搏動處이다.

十二經脈의 動脈 搏動處를 比較하는 脈診法은 煩雜하여 다른 經脈 脈診의 方法이 考案되어 臨床에 運用되자 醫家들의 利用度는 적었다. 그러나 《靈樞·動腧》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 하여 十二經脈의 動脈處 中에서 診斷의 意義와 搏動을 쉽게 感知할 수 있는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命門의 機能을 按診하는 足少陰의 太溪脈 등은 《傷寒論》 《金匱要略》 《脈經》 등의 古醫籍에 記載되어 있다²⁰⁾. 그리고 張¹⁰⁾은 “動脈은

無時無動하고 古人들이 言及한 動脈處는 모두 肌肉의 淺表에 있는 動脈의 按診處들은 聯關關係가 없으므로 古醫籍의 動脈處의 差異를 穿鑿할 理由가 없다” 하였다.

한편, 馬²²⁾는 “古人의 診脈은 手에서만 局限하지 않고, 斗面手足의 動脈處에서 診脈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고, 葉²³⁾은 “身體의 動脈處는 《明堂針灸圖》 《甲乙經》 등의 醫籍에는 20 餘穴이 있으며 10 餘穴 만이 診脈에 利用되었고 10 餘穴 中에 足脈의 太溪 衝陽 太衝이 重要하다” 하였고, 徐²⁴⁾는 “手太陰의 太淵, 足陽明의 人迎, 足少陰의 太溪의 動脈 등 3곳 以外의 十二經脈의 動脈處는 단지 經穴의 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論者는 《難經》을 著作한 醫家들은 戰國의 著作인 《足臂》 《陰陽》 및 《脈法》, 漢代의 著作인 《素問》 《靈樞》의 十二經動脈診 및 五輸穴의 運用의 診斷法인 十二經脈脈診의 方法을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 何謂也” 하여 各各의 臟腑 및 經脈을 診斷하는 十二經脈 脈診法에서 臟腑 相互間의 病理를 把握하여 各 經脈의 五輸穴을 運用하여 針灸治療를 할 수 있는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의 氣口脈으로 演變되었다고 思料된다.

IV. 結 論

古代의 遍身診法 中에서 十二經脈의 動脈處를 按診하는 十二經脈 脈診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十二經脈 脈診은 經脈의 發見과 形成의 初期

에 經脈循診의 過程 중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萌芽한 概念의 脈診方法이다.

2. 十二經脈의 動脈處에서 診斷하는 方法에 對한 意義로 “手足의 三陰三陽의 十二經脈은 天地의 陰陽이 通하고 人體의 氣血을 運行하여 十二經의 動脈處에서 百病을 診斷하고 生死를 鑑別할 수 있다” 하였다.

3. 《陰陽十一脈灸經》의 各各의 經脈은 “是僮則病”의 文句가 있으며, 《難經洵注箋正》에서 “各經脈 搏動의 診脈處는 本經의 寒熱虛實을 살필 수 있다.” 하였고, 《脈法》에는 比較脈診의 기록인 “相”의 方法으로 診斷하여 “啓脈”의 刺絡, 灸 등으로 治療方法을 運用할 수 있다.

4. 十二經脈 脈診은 煩雜하여 觸知가 쉬운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命門의 機能을 按診하는 足少陰의 太溪脈을 除外한 나머지 診脈處인 動脈處는 “動脈應手”의 取穴方法으로 利用되었다.

5. 十二經脈 脈診은 單獨의 臟腑 및 經脈을 診斷하는 脈診法에서 臟腑 相互間의 病理를 把握할 수 있는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의 氣口脈으로 演變되었다.

V. 參考文獻

1. 馬繼興. 馬王堆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1-5.
2. 이정훈, 윤중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3. 이정훈, 윤중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9;16(2):139-179.
4. 서용원, 윤중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脈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19(1):139-179.
5. 李景營. 千金翼方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385.
6. 鄧良月·黃龍祥. 中國針灸證治通鑿. 青島:青島出版社. 1995:1. 3-22. 38. 47-48.
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262-338.
8. 滑壽. 難經本義.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1-4.
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41.
10. 張山雷. 張山雷醫集·難經洵注箋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57.
11.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臺灣中華書局. 1985:5-10.
12. 金富煥. 倉公傳에 나타난 秦漢 醫學思想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84-94.
13. 皇甫謐. 鍼灸甲乙經.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56, 134-8
14.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2:295-307.
15.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79:58-59.
16.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上海:文匯出版社. 1994:22-27.
17.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264-266.
18. 黃世林·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人民衛生

- 出版社. 1986:1.
19.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北京出版社. 1997:1328-1329.
20.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一中社, 1992:118-121. 173.
21.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大成出版社.1983 :224-233.
22.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159.
23. 葉霖. 難經正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1
24.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7.